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돏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돏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금수강산

5

주체111(2022)
루게 제393호 월간





표지: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평양시군중시위 참가자들이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김일성광장 주석단앞을 지나고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굳은 신념과 맹세가 짙게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2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0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16

민족최대의 명절을 다채롭게 경축 38

4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칭송의 노래 44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경축의 춤바다 52

해외동포단체들 대양절을 뜻깊게 경축 54

우리의 대양찬가는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다 5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
뜻깊게 경축 5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남만으로 64

일 화
근로하는 인민들을 표창하는 모임으로 67

민족대단결의 첫 회합 68

로동의 희열이 넘쳐흐르는 일터 70

편집: 최은혁

1-22807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4월 15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모범적인 일군,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912년의 4월 15일이 있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고 인민이 누리는 존엄과 영광,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세대는 바뀌어도 모두의 가슴속에 더더욱 절절하게 새겨



지고있다고 하면서 한평생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시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즐기치게 나아가갈 때 우리 국가는 그 어떤 고난과 천지풍파에도 끄떡없

이 인민의 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것이 김일성조선 110년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한생이 응축되어있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유산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리상이 완벽하게 실현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진군해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빛나는 조국》의 승업한 선물이 울리는 속에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었다.

경축광장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상징인

공화국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이 들어섰다.

이어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광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로동계급대렬과 농업근로자춤대렬을 비롯한 시위대오들이 《수령님 세워주신 사회주의 내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나라!》, 《수령님 불러주신 전설의 천리마!》, 《인민을 위해 걸으신 수억만리!》 등의 글발이 새겨진 구호판들을 들고 용용히 행진해 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당과 국가를 충성의 일편단심과 혁명적기개로 만들어가는 미더운 인민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격려해 주시었다.

시위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광장바닥에 《자주, 자립, 자위》, 《천리마조선》, 《주체의

길》을 비롯하여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글발들이 편이어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만들어모시고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끝까지 참되려는 강렬한 지향이 청년학생중북대렬, 군인가족대렬, 공로자대렬, 소년단체대렬들에도 세차게 맥동쳤다.

《사회주의강국》, 《일심단결》, 《자력갱



생》이라는 글발이 썩여진 대형붉은기폭을 추켜 든 대오가 우렁찬 구호를 합창하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돛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돛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4월 25일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실주녀사와 함께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로병간부들,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90년전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탄생이 우리 혁명사와 민족사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발전에서 가지는 심원하고 위대한 의의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혁명의 무장은 분출하는 조선민족의 독립정신이었고 희망이었고 위대한 단결의 기치였으며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사람의 주먹에 자존의 기상과 역센 힘을 재워준 원동력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선렬들의 진한 피와 고귀한 넋이 힘차게 높뛰고 혁명무력이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의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의 체현자로 항상 혁명의 전위에 서있는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앞으로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22페이지로 계속)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

주체 111(2022)년 4월 25일



영웅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

경축의 광장에 초대된 전쟁로병동지들과 모범적인 군인, 근로자동지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깊고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장구한 건군사의 영광이 끝없이 빛나는 이 시각 우리모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 자기 무장력에 대한 크나큰 자부에 넘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승리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여기 김일성광장에 정렬한 미더운 정예부대들의 모습과 그를 통한 공화국무력의 현대성의 높이를 보면서 90년전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탄생이 우리 혁명사와 민족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심원하고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민족해방, 자력독립의 기치높이 반제결사항전을 선포한 거족적장거인 동시에 강력한 혁명무장력에 의거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습니다.

이 사변의 중대한 의미는 역사의 품운속에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인민이 자기의 민족군대와 중흥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하려는 견결한 반제혁명사상, 주체적힘으로 기어이 인민의 자유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의 굴함없는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조선혁명가들이 선택한 이 결단과 의지가 천백번 옳은것이였음을 명백히 실증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혁명의 무장은 분출하는 조선민족의 독립정신이었고 희망이었고 위대한 단결의 기치였으며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사람의 주먹에 자존의 기상과 억센 힘을 재워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장대오에서 조선혁명의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고 제국주의폭제를 이길 불요불굴의 정신과 강철의 힘이 버려졌으며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창건초기부터 간직하고 계승해온 그 사상과 신념, 전통은 류레없이 치렬한 반제대결전과 준엄한 계급투쟁의 전조선에서, 변천되는 역사적환경속에서 자기 본연의 혁명적, 계급적성격과 사명을 명심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령도와 인민을 사수함에 불멸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한 정신력의 바탕으로, 백전백승의 담보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만고의 혈전혈투로 조국해방, 민족재생의 대업을 이룩하였고 무비의 영웅정신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과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전 역사적기간 자기 집권당과 정권, 자기 령도와 인민

을 사수하며 백승의 무훈을 기록해온 그렇듯 영웅하고 강인하며 총직한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을 무상의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것의 첫 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공헌이 깃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국가방위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힘있는 역량으로서 언제나 당의 구상을 받들고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거창한 혁명사업들에 헌신적으로 분투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데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기 당과 정권,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최고의 영예로 간주하고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였으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한 혁명적무장력의 90성상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한세기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것입니다.

우리모두는 간고하였던 혁명의 년대기마다 위대한 무장력이 항상 앞장에서 진군로를 열어왔으며 영광스럽고 보람넘친 공화국의 승리사가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과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것을 영

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도도히 행진해갈 공화국무력의 정예부대 장병들과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역들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우리 군인들모두가 바로 우리 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당당하고 긍지높은 계승자, 체현자들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며 혁명선렬들의 대를 이어 위대한 계승의 려정을 견고있는 조선인민군과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국가방위의 전조선에 내세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에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동지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무장으로 담보하여온 혁명무력의 영광넘친 90성상의 행로는 백년, 천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주한 시대에서 강군의 영광을 계속 떨치며 지나온 90년사와는 대비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변해가

야 합니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혁명이 이를 요구하며 후손만대의 장래가 이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총로선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하는 군대로 만드는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 혁명적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로 빛나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건설방향과 총로선을 견결히 틀어쥐고 혁명무력발전의 새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자면 정치사상강군화, 군사기술강군화를 핵심목표로 정하고 우리 무력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성하고 자기 혁명위업에 무한히 총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어떤 전쟁과 위기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용기와 능력, 자신감에 넘치는 최정예강군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군화는 우리 군건설의 기본이며 전략적인 제1대과업입니다.

우리 혁명군대를 당과 인민의 군대, 계급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과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기본은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이며 무장력의 주체인 군인대중의 사상정신적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 배양시켜야 할 군대의 투철한 혁명정신, 계급의식은 우리 군대의 전투력, 국가방위력을 갖추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혁명의 세대는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위대한 혁명사상과 정신의 바통을 굳세게 계승해나가는 것을 군건설, 반제투쟁의 초미의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있으며 우리는 이를 군건설의 기본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우리 혁명무력의 질적인 우세를 확고히 유지강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사상혁명에 계속 불을 걸고 군인대중의 혁명사상배양, 정신력배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육성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장병들을 오직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만 싸우며 투철한 계급의식과

불굴의 전투정신을 체질화하고 당중앙이 정한 과녁의 중심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번의 불발도 모르는 사상적근위병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상승시키기 위한 군사기술강군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군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고도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군사인재육성체계의 현대화를 추동하여 각급 군종, 병종부대들을 능숙히 지휘통솔할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우고 작전전투훈련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을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새세대 첨단무장장비들을 계속 개발, 실전배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강세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즐기치게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동지들, 인민군장병들!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무력은 언제나 자기 위업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고 자신심에 넘쳐 온갖 도전들을 맞받아 용감히 나가야 하며 인민의 안녕과 존엄, 행복을 지키는 성스러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무적의 군사적강세를 틀어쥐고 우리의 사회주의 발전을 튼튼히 담보해야 합니다.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

당신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선렬들의 진한 피와 고귀한 넋이 힘차게 높뛰고 혁명무력이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의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의 체현자로 항상 혁명의 전위에서 있는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조선인민군과 전체 공화국무력의 지휘관, 병사들!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1페이지에서 계속)

이어 열병종대들의 행진이 있었다.
김정은 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말발굽소리드높이 명예기병
종대가 호기차게 나아갔으며 그뒤를 이어 조선혁명무력의







첫 세대 항일무장투쟁시종대가 붉은기를 나
뚫기며 행진해갔다.

이어 조국해방전쟁시종대,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를 지켜선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전선동부를 굳건히 지

켜선 백두산호랑이군단인 제1군단종대, 전선서
부의 전초병군단들인 일당백고향부대 제2군단
종대와 제4군단종대, 전선중부에 철벽의 진을
친 제5군단종대, 해군종대와 공군종대들이 혁명
군가에 맞추어 영용한 기개떨치며 진군해갔다.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미사일병들의 활기찬 용진에 이어 특수작전군 종대가 광장으로 들어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루고 국가방위의 제1선진지들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고있는 핵심부대, 주타격전방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조선혁명의 심장 평양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해가는 고사포병군단, 제91군단, 제3군단종대에 이어 조국의

동서해안과 북부지대, 국경관문을 지켜선 군단
중대들이 힘찬 보폭을 내걸었다.

무쇠타격집단인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
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을 비롯한 땅크장
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중대들이 련이어 광장
에 들어섰다.

만능싸움군, 맹호부대인 정찰병중대, 산악보
병중대와 전자교란작전부대중대를 비롯한 전문
병중대들과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

종합대학중대,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중대,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실현에 이바지해나
가는 김일성정치대학중대, 주체적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있는 김정은국방
종합대학중대에 이어 각급 군사학교중대들과
혁명학원중대들이 광장주석단앞을 지나갔다.

이어 사회주의조국수호, 향토방위의 믿음직
한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된 로농적위군중대와





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정예부대의 위용떨치는 국가보위성 종대, 사회안전군의 여성교통안전원종대, 군견수색대종대, 특별기동대종대와 비상방역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공군의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으며 우람찬 철마의 굉음으로 지축을 울리며 기계화종대들이 위엄있게 광장을 누벼나갔다.

최신형전술미사일종대와 주력땅크종대, 인민군대의 제1병중인 포병무력종대, 초대형방사포종대, 전략미사일종대 등 조선로동당식주체병기들이 광장으로 편이어 들어섰다.

공화국전략무력을 대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거대한 실체가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들어서자 삼시에 온 광장이 환희와 걱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관중들은 전국이래 일찌기 가져보지 못했던 최강의 국력을 키워주시고 반만년민족사







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은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하는 혁명적당군, 믿음직한 평화의 수호자로 위용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수를 담보해나가는 공화국무력의 불패성과 강대성, 변혁적인 발전상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는 특대사변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명절을 다채롭게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왼쪽)과 금수산태양궁전(오른쪽)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온 강산에 차넘치는 태양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

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에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공산당이르꾸쓰크주지부위원회,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도이쉴란드반제연단, 로씨야 엔. 에스. 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카데미야베료즈까무용단, 국제태권도련맹,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세네갈독립로동당 정치국 위원 이브라히마 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국 단동시조선족련합회, 이탈리아국제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적도기네 문화, 관광 및 수공업장려상 루피노 느동 에썬

노 느차마,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꼬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의 정당, 단체, 국제 및 지역기구와 인사들, 해외연고자가족들, 재중동포단체,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조국인민들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중앙사진전람회와 국가미술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우표전시회,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절감하였다.

조명축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우표전시회,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행사들에는 당과 국가의 간부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전람회,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을 쫓아오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탁월한 인민적수령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되새겨보았다.

태양절을 맞으며 영화상영주간도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제25차 태양절로리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웅변모임,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맹세모임, 조선소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 중앙연구로문화회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마라손경기

단 전국연합단체대회, 태양절경축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해님》, 너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등이 진행되었다.



제25차 태양절료리축전

조명축전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위동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 기념주화 발행 -



금화와 은화의 앞면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옷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을, 아래부분의 량옆에 《1912》, 《2022》라는 년도를 새기고 목란꽃으로 장식하였다.

금화와 은화의 뒤면 중심에는 해돋는 만경대

고향집을 형상하였으며 옷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자를, 아래부분에 순도, 무게, 발행년도를 부각하였다.

금화의 규격은 직경 35mm, 두께 2mm이며 순금이다.

은화의 규격은 직경 40mm, 두께 3mm이며 순은이다.

- 우표 발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개별우표 1종, 소형전지 1종, 묶음

전지 1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에는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인양 경축의 하늘가에 무수히 터져오르는 축포를 배경으로 화창한 4월의 만경대 고향집이 형상되어있다.

《4. 15. 태양절》이라는 글자가 부각된 소형전지에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

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조선화 《영원한 태양》, 《강선의 로동계급을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풍년든 전야에서》를 형상한 우표들이 있는 묶음전지는 한평생 조국의 룡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멀고 험한 공장길, 농장길을 쉬임없이 걸고걸으신 아버지수령님의 헌신의 로고를 숭엄히 되새겨보게 하고있다.

우표들의 옷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4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칭송의 노래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명절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노래가 누리를 진감하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돐경축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중앙예술단체들과 예술교육기관들의 창작가, 예술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조국인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심장으로 부르는 기념비적송가들과 로동당찬가들, 시대의 진군가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20성상의 눈보라만리길, 혈전만리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생애를 숭엄한 노래선률에 담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온 년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를 비롯한 명곡들을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적당과 국가, 무력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이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애민헌신의 세계를 숭엄히 되새기게 하는 《포전길 걸을 때면》, 《우리 수령님》 등의 송가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조국은 위대한 태양의 나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리를 새겨준 공연은 종곡 《세상에 부럼없어라》, 《태양절을 노래하세》로 절정을 이루었다.



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대화시 《감자현물세》에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한편 국립교예단 요술극장에서 진행된 도예술단 요술배우들과 요술애호가들의 공연은 조국인민들의 보람찬 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참신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축전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지난 11일 수도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개막된 후련 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각 지역과 단위에서 선발된 20여개 단체의 수많은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축전은 수도의 극장, 회관들에서 도예술단부류, 예술선전대부류, 기동예술선동대부류, 예술소조부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도의 예술인들이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봄을 노래하는 기쁨을 안고 다양한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황해남도, 강원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관현악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합창 《태양절을 노래하세》, 녀성3중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노래와 춤 《만경대의 노래》에서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예술선전대원들의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노래 《태양절 봄명절》, 대화시 《수령님과 연백별》, 어은금병창 《수령님 밤이 짝 깊었습니다》를 비롯한 종목들이 펼쳐졌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도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연산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이민위천을 좌





32번째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봄빛이 완연한 축전도시 평양에서는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축전은 국제통신으로 보내온 공연록화편 집물들을 특색있게 편집하여 조선중앙TV로 방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동방연예집단, 로씨야 첼라빈스크국립우





랄무용단, 라오스국립예술단, 로르니아 마드리갈-마린 끈쓰편편국가실내합창단, 오스트리아 야노슈카기악중주단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쿠바, 웰남, 라오스, 벨라루씨, 몰도바, 마자르,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티오피아 등 수십개 나라의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과 해외동포예술단들이 축전에 참가하였다.

제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나 축전금상을 수여받은 중국동방연예집단의 예술인들은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녀성4중창 《불라는 소원》 등의 종목들을 성의있게 준비하였다.

출연자들은 개성적인 창법과 우아한 룰동, 재인 안삼블로 중화민족의 포부와 기상, 민족무용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

로씨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있는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의 예술인들은 다채로운 작품들을 준비하여 조로친선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치었다.

무용 《친선의 꽃바구니》에서 출연자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 계속 이어나갈 로씨야인민의 지향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국제콩쿨수상자들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가정악단인 오스트리아 야노슈카기악중주단, 로르니아 마드리갈-마린 끈쓰편편국가실내합창단, 라오스국립예술단의 공연도 커다란 감흥을 자아냈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다채로운 종목들을 축전무대에 올렸다.

제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여러 종목들을 통하여 래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애족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불변의 신념을 반영하였다.

혼성5중창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재중조선인예술단의 배우들은 남성독창 《어머님의 목소리》,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 등의 곡목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추켜 들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제까지호스판조선인독창가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되새겨보게 하는 노래 《눈이 내린다》를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형상하였다.

동포들의 공연에는 민족적색채가 짙고 흥취나는 종목들도 펼쳐져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경축의 춤바다



해외동포단체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우리의 태양찬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단체들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領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14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단둥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경축보고회가 15일 중국 단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리순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성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축하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였다.

보고회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에서는 화상으로 시청하였다.

보고회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흠모작품발표회, 경축공연,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경축업적토론회》가 13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주최로 중국 심양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 의장은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미제를 타승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승리로 령도하시어 우리 조국

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그는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우리 공화국이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오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전체 재중동포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에서는 조선기록영화 《우리 수령님》을 시청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토론회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에서는 화상으로 경축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는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꾸려진 사진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이에 앞서 해외동포들속에서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에 대한 흠모의 열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재중동포들이 글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영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방영신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은 글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만고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의 공동주최로 9일 모스크바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김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조로관계발전애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과 념원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별》, 《김일성장군의 노래》… 태양찬가를 부르며 어버이주석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곳들을 돌아보느라니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주석님께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더더욱 못견디게 우리나라옵니다.

그래서 미숙하나마 붓을 들어 태양찬가에 대한 저의 마음을 감히 글로 적어봅니다.

1

한별의 노래 《조선의 별》은 우리 겨레가 심장으로 터쳐 올린 첫 태양찬가입니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세기전에 창작된 노래이지만 오늘도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태양찬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답사길에 우리는 《조선의 별》이 창작되어 처음으로 퍼져나갔던 길림성 신안툰을 찾았습니다.

신안툰은 지도상에 점으로밖에 찍혀져있지 않는 중국의 자그마한 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중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신안툰이 결코 세계의 어떤 명승지이름보다 더 소중히 새겨져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시인 김혁동지를

비롯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한 뜻깊은 곳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안툰을 즐겨 찾곤 합니다.

초기혁명활동시기의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지도자를 받들어모셨고 어떻게 자기의 수령을 열렬히 칭송하였는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뜨겁게 말해주고있는 신안툰입니다.

지금 그곳은 많이 변화된 농촌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아직도 그때 당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격정과 환희에 넘쳐 부르던 노래 《조선의 별》에 대한 추억이 고이 간직되어있습니다.

신안툰에서 위대한 주석님을 한별로 우리르며 목청껏 터치던 환희의 노래!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 겨레를 구원할 지도자, 온 민족이 자기의 탁월한 령수를 애타게 갈망하던 숙망을 이룬 감격의 환호성, 력사상 처음으로 모신 절세의 위인을 우리러 터친 뜨거운 격정의 분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5천년 우리 민족사의 그 어느 갈피에 위대한 령수를 모셔본적 있었습니까.

봉건의 질곡속에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소리만이 터져나오던 조선이었고 쇠퇴해진 국력으로 국토는 외세에 의해 란도질당하고 종당에는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우리 나라였으며 그래서 그

력사도 피눈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은 있어도 의지할 품이 없고 하늘은 있어도 밝고 따뜻한 빛을 뿌려줄 태양이 없는 암흑의 땅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강탈당하고 망국의 피눈물을 뿌리며 살길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 현해탄을 건너 낯설은 이국땅으로 길가의 가랑잎마냥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 당한 설움과 고통, 불행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그 당시에는 시가 있어도 망국비운의 통환을 담은 시가 전부였으며 노래도 《눈물젖은 두만강》과 같은 서글픈 류형가뿐이었습니다.

아, 조시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굳세지를 못하였느냐
왜 남과 같이 슬기롭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느냐

하지만 우리 민족이 결코 나라가 작고 슬기롭지 못해 망국노가 된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옹바로 이끌어줄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부국강병으로 나갈 때 갖쓰고 하늘소라고 태평성대를 읊조리며 음풍영월속에 세월을 흘러보낸것이 바로 어제날의 조선봉건왕조의 구슬픈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그 숨막히는 봉건의 울타리속에서 나라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얻은 대가는 과연 무엇이였습니까.

황제조차 제땅에서 자기 몸들 곳 없어 다른 나라 공판에 끌려가야 했던 《아관파천》의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황비가 시퍼런 대낮에 일본사무라이 깡패들의 칼에 맞아 처참하게 살륙당하는 《을미사변》의 참극도 빚어져야 했던 불운의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결코 백성이 있고 령토가 있어 나라가 아니였고 군대가 있다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는 민족의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탁월한 령수를 모시는데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수령에 의해 개척되고 결정된다는 피의 총화, 력사의 철리를 우리 민족은 꼭절 많은 독립투쟁사의 가시덤불을 헤치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찾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의 출현은 당시 우리 민족사의 부름이였고 우리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바로 겨레의 이 목마른 념원과 력사의 부름속에 우리 민족의 새별로,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것입니다.

겨레의 그 감격과 흥분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김혁동지가 그대로 가사와 선률로 만든것이 바로 우리 겨레의 첫 태양찬가 《조선의 별》이였습니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노래에도 있듯이 칠칠야밤의 강산에 빛을 뿌리는 새별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 새별을 따르

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희망과 신심이 가사의 구절구절에 그대로 맥박쳐흐르고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주석님께 드리는 우리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끝없는 신뢰의 찬가였고 송가였습니다.

당시 우리 주석님은 10대였습니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주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제 나름대로 혁명운동에 참여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되어 우리 주석님께 그토록 매혹되어 위대한 태양으로 떠받들어모시였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석님의 인품에서 조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인간태양이심을 보았던것입니다.

참으로 《조선의 별》은 한편의 노래이기 전에 우리 주석님을 우리러 더친 우리 겨레모두의 뜨거운 격찬의 첫 태양송가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주석님께서서는 자신을 새별과 태양에 비기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태양을 우러르는 우리 겨레의 마음이 담긴 이 태양찬가의 보급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량심으로 간직하고 적극적으로 대중보급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버이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라

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습니다.

김혁동지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우리걸을 떠난지도 거의 한세기가 되어오고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겨레의 념원을 담아 태양의 존함과 태양찬가를 지어 력사에 남긴 그들의 모습과 마음들은 우리 조선의 밑뿌리가 되고 력사가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창작된 태양찬가 《조선의 별》.

이 노래는 그 누가 의무감에서 창작한 노래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음악가가 지은 노래는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유명한 작가도, 음악가도 이처럼 훌륭한 태양찬가를 지을수는 없을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 우리 겨레만이 가질수 있는 행운으로 태어난 노래가 바로 《조선의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의 태양찬가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색되지 않고 영원히 울려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초엽 조선의 밤하늘에 솟아 밝게도 빛나던 새별을 우러르며 부르던 그날의 태양찬가는 세기를 이어가며 더욱 뜨겁게 울려퍼지고있습니다.

2

《조선의 별》 노래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태양찬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은장군찬가》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퍼지고있습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장백의 험한 산밭을 헤치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느라면 우리 주석님의 천신만고 가 그대로 어렵니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캄캄한 밤하늘의 새별이 되시여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실것을 소망하는 겨레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이라면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 어버이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태양찬가입니다.

태양은 광휘로운 열과 빛으로 만물을 품어키웁니다.

정녕 우리 주석님은 겨레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과 열, 빛을 다 뿌려주신 민족의 태양이시였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겨레의 기쁨, 자유조선의 꽃다발은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였습니다.

장백의 줄기줄기 험한 산밭들과 설한풍, 압록강과 두만강의 굽이굽이마다에 찍혀진 피어린 자옥들은 조국해방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전해주고있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의 한생에 대하여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태어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던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류의 생활에 미증

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팔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자신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라고 쓰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석님께서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길에서 피어린 자옥자옥을 새기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국에 묻어야 하셨고 항일의 전장에서 사랑하는 동지들을 잃는 뼈에이는 슬픔도 감수하시야 했습니다.

15성상 백두광야의 항일의 혈전장에 자신의 정과 열을 깡그리 뿌리시면서 끝끝내 우리 겨레에게 해방의 대사변을 안겨주신 어버이주석님의 그 불멸의 업적을 어찌 장백산 줄기줄기의 산밭들과 압록강 굽이굽이의 푸른 물결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만주별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렇습니다.

진정 어버이주석님은 우리 겨레의 구세주,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주석님을 모시였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펼치는 사회주의강국이 동방의 일각에 우뚝 일떠설수 있었습니다.

그 기개로 당당한 새로운 100년대의 주체조선의 오늘도 위대한 주석님께서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 뜻깊게 경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행로에서 조국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지난 10년은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위상을 힘있게 떨치며 주체혁명의 려정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친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지난 4월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의 크나큰 영예이고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완벽한 실천강령들을 천명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미증유의 국난속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당건설과 당활동의 불변의 지침을 마련하시고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인민의 당으로,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지난 10년간은 자주의 혁명로선을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중앙사진전람회

들어쥐고 자력으로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저력과 불굴의 진군기상이 힘있게 입증된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정치체제의 우월성과 위력이 비할바없이 공고화되고 최강의 국력을 마련하는 력사적대업들이 완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산주의미래를 향해 용기백배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튼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려정에 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종합해설을 듣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꾸려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시기관》의 여러 호실을 돌아보았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기에 빛날 업적을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과 혁명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한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 보고대회와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중앙미술전시회

우표 발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경축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소형전지 1종)를 발행하였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붉은색바탕과 빛살을 배경으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였다.

우부분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경축》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그리고 목란꽃을 조화롭게 형상한 우표의 아래부분에 《2012 10돐 2022》이라는 글발이 부각되어있다.



고 우리 인민이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가장 순결하고 완벽하게 수호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계승과 완수를 확고히 담보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지닌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 정예화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여 자존, 자립으로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혁명업적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 표본들을 끊임없이 마련하시며 혁신과 창조, 전진과 비약을 우리 조국의 용융한 기류로, 약동하는 기백으로 되게 하여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심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전채택모임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 충성의 맹세로 충만된 축전채택모임들은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불패의 성세를 이룬 주체조선 특유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각지 인민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수도 평양과 각지의 거리마다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 최대의 행복》,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등의 글발들이 새겨진 직관물들이 게시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경축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중앙의 예술선전대들과 평양시안의 예술소조들의 경축공연이 수도의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어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밖에도 중앙미술전시회, 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10년》, 근로단체들의 경축모임,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등이 진행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남 만 으 로

(1호에서 계속)

우리가 원정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동무, 원정을 갈바엔 며칠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뜨는것이 어떻겠소? 근처에 신작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것도 재미없구. 식량사정두 매우 곤란한 형편이요. 농가는 40호정도밖에 안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솔이 모여서 먹어대니 소사하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디어 내겠소.》

봄부터 기근이 들어 춘황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때문에 식량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였다.

그러나 적수송대의 래왕이 잦기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 일어난 이상 한번 싸워보는것이 어떻소?》

《전투를 하자자는거요?》

《그럼소, 부대를 무엇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갔다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구있을 멋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수 있을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작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매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였다. 그들은 소영자령에서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형식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매복전이라고 간주하고있었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었다. 대전차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소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오불꼬불 나있어 매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고장이였다. 적들은 이 도로를 리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있었다.

매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였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민속한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양쪽에 매복시키였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적아를 잘 구별할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것이 더 능률적이였다. 항일전쟁의 전기간을 거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실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리치를 타산할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리는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무렵에야 소영자령에 나타났다. 100m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수 있으리만치 몹시 긴장되고 흥분되였다. 처음으로 다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엮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어지간히 긴장되어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첫번째 매복조는 마차행렬을 그대로 통과시키였다. 그 행렬이 두번째 매복조앞으로 한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우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팔에 흰수건을 감아서 적아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적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총질을 하였다. 10여명의 호송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에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였다. 적들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였다. 전부가 위만군병사들이였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하사관이였다.

나는 투항한 적들앞에서 짙막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목조)툰으로 돌아왔다. 보총 17정과 권총 1정, 그밖에 100명이 한달가량 먹을수 있는 많은 량의 밀가루와 천, 군화... 첫 전리품으로서는 대단히 푸짐한 량이였다.

밤 12시가 넘어 우등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음식맛도 좋았지만 기분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 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고있다.

근시경밀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등불을 둘러다보고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

석 틀어잡고 목멘 소리로 말했다.

《이것보, 성주! 꺾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였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것이였다. 싸움이란 별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수 있다 하는것이 나의 심정이였다.

《이런 때에 김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나오는 건데. 사람두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리갑이, 제우, 공영이, ... 모두 어디에 가고 없단 말인가!》

차광수는 녀두리라도 하듯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대오에서 먼저 떠나간 동지들을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나도 역시 한목숨을 다 바쳐 반일인민유격대의 초석을 쌓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애달픈 심회를 달래일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오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차광수는 안경을 벗어두고 손세를 써가며 우등불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첫걸음을 떼었소.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소.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요.》

그는 두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하오. 안 그렇지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업의 시작이요. 자그마한 내물이 심산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흐름을 시작했단 말이요.》

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였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로획한 총을 나누어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새 적을 쫓아눕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것이고 식량이 생길것이요.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것이요. 로획한 량식으로 미대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방식이고 투쟁방식이 아니겠소.》

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조덕화였던지, 박훈이였던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걸음을 내짚었다.

(끝)

일화

근로하는 인민들을 표창하는 모임으로

조국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영웅운동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일군들을 부르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로동영웅운동은 그때 전국의 모든 공장과 광산, 농촌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일군들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5.1절을 계기로 이 운동을 한계단 더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와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5.1절을 계기로 군중시위를 예견하고있는것밖에 깊이 생각해본것이 없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5.1절을 맞으며 로동영웅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과 개별적으로 동자들을 전국적범위에서 선출하여 크게 표창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고역에 시달려온 우리 로동자들을 그토록 위해주시는 위대한 사랑이 장내에 걱정의 파도를 몰아왔다.

인류력사에 로동계급이 출현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력사는 자기의 갈피에 정치적자유와 생존권을 위한 로동계급의 피어린 투쟁을 아로새기였다.

히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의연히 대다수 근로대중이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무권리와 빈궁속에 허덕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오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며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그 평가는 단순히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고무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그들의 성실한 로동과 수고에 대한 깊은 리해와 따뜻한 감정의 표시로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이번 표창식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로하는 인민들을 표창하는 뜻깊은 모임으로 될것이라고, 전국의 선구자들인 로동영웅들을 표창하는 중요한 모임인것만큼 준비를 잘하며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모임에 참가하여 로동영웅들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일군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모범로동자들에 대한 표창식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해방후 첫 5.1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다.

실로 그것은 로동계급을 제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낳은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본사기자

민족대단결의 첫 회합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단결은 매우 귀중하다.

민족이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필연코 망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교훈이다.

지금으로부터 86년전 5월에 진행된 조국광복회창립대회는 조국력사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한 첫 회합으로 기록되어있다.

당시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신음하던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가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데 귀착되고있었다.

이 어려운 시대적과제를 떠안으시고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살아오던 조선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단결의 기치를 마련해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을 개시하시면서부터 온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해방성업의 근본전제로 내세우시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켜 성스러운 투쟁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일찍부터 큰 힘을 넣어오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기 위해 주체25(1936)년 2월에 있는 남호두회의에서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때부터 조국광복회를 창립

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되였다.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성원들과 명망있는 애국인사들이 망라되였다.

조국광복회창립준비사업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기간행군과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친히 작성하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주체25(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역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여시고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전략전술적원칙이 규정되어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과 각계층 애국적인민의 공동된 리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한 조선혁명의 전도가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나라의

독립뿐 아니라 인민의 나라를 세울것을 목표로 내세운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범위에서 보다 조직성있고 체계성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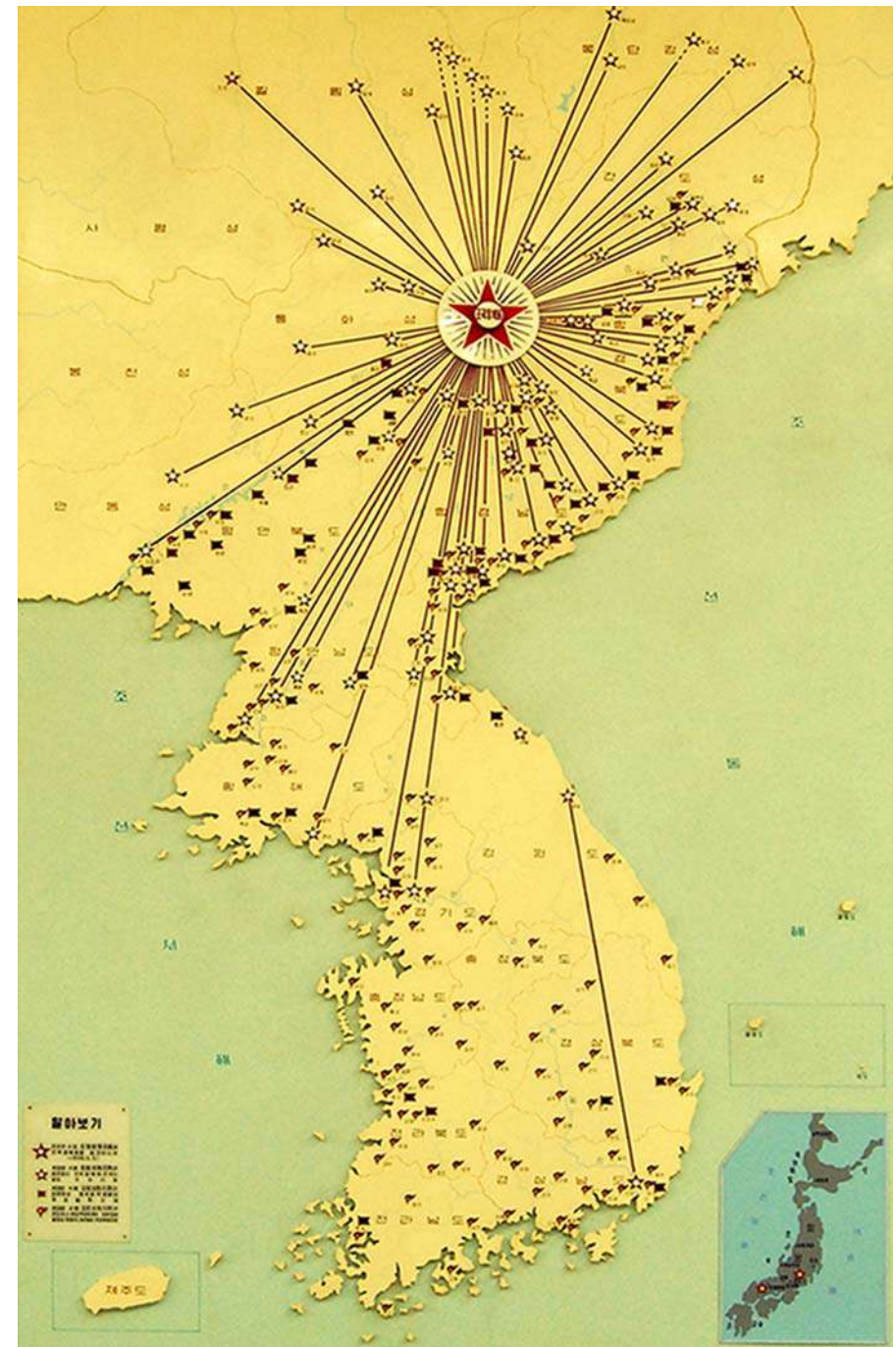
그후 천도교 도정이었던 박인진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됐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고 백두산밀영을 방문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천도교청년당원 100만명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인진도정만이 아닌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그이를 찾아왔으며 그들은 모두가 조국광복회의 조직확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하여 조국광복회는 단시일만에 수십만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온 민족의 단결된 힘은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안아왔다.

그후에도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오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외세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하시교 령도하시인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주체25(1936)년 5월-주체34(1945)년 8월

그 추종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이 우심하였던 엄혹한 시기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였고 주체79(1990)년 8월에는 조국해방45돐을 맞으며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도 마련해주시였다.

이렇듯 민족대단결의 첫 회합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마

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은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투쟁의 길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노동의 희열이 넘쳐흐르는 일터



대동강반의 미래과학자거리 가까이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 위치하고있다. 지난 기간 수많은 비단실을 생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공장은 75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그 나날 공장의 종업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주체54(1965)년에 평양시에서 제일먼저 천리마공장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러한 바통은 오늘도 련면히 이어지고있다. 공장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서 언제나 전국적으로 앞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며 공장에는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모범근로자들이 많다. 지난 1. 4분기에만도 조사2직장 정수영, 조사3직장 김주송, 리옥경, 조사4직장 로선향, 박금화를 비롯한 많은 조사공들

이 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높아가는 생산실적, 늘어나는 계획완수자대렬은 공장의 로동생활조건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공장에는 그들의 로동생활에 편리하





게 모든 생활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파일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우거지고 도처에 아담한 휴식터들이 있는 공장의 구내는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나 공원을 방불케 한다.

거기에 룡정어, 금잉어들이 떼를 지어 노는 양어장은 그들의 좋은 휴식장소로도 되고 있다.

녀성근로자들의 하루로동이 끝난 후의 생활도 이채롭다.

모든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로동자합숙은 처녀조사공들의 정든 《집》으로 되고있다. 합숙에는 조리실습장도 있는데 이곳에서 처녀들은 미래의 가정주부로 되기 위한 착실한 준비도 갖추고있다.

또한 목욕탕과 미용실을 비

롯한 후생시설들은 물론 수영장도 있는 진달래원에서 녀성근로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가 하면 규모있게 꾸러진 체육관과 문화회관에서는 자기의 취미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공장구내에는 인공잔디를 깔 운동장이 있는데 5.1절을 비롯하여 명절, 휴식일에는 이곳에서 직장별로 다채로운 체육, 유희경기가 진행되군 한다.

또한 공장에는 탁아소와 유치원도 있으며 공장가까이에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살림집도 있다.

공장의 이러한 로동생활조건은 생산장성, 생산성파로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공장에 꾸러진 진달래원과 로동자합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공장탁아소에서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